

## 오피니언

## 다산포럼

염재호



무더운 여름 시원한 생맥주 한잔은 갈증을 식히고 더위를 날려 보내기에 더없이 좋다. 하지만 생맥주를 잘못 끄면 거품만 가득하게 된다. 잠시 후 거품이 빠지고 나면 진짜 맥주는 반도 안 채워진 것을 알고 실망하게 된다.

일본이 없어버린 10년을 지나 없어버린 20년을 보내고 있는 것은 거품경제 때문이다. 일본수출이 미국시장을 위협하던 1985년 미국과 플라자 합의를 통해 미국 달러 대비 일본 엔화 가치가 두 배 가까이 상승하게 되자 일본 경제의 거품현상이 일어났다.

일본 국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본 기업들은 미국 뉴욕의 대형건물들을 사들이고 미국기업들을 인수하며 세계 경제를 제패하려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높은 엔화 가치로 제조업 경쟁력이 서서히 타격을 입기 시작했고, 거품경제가 불과하자 은행의 도산이 줄을 잇고 일본경제는 추락의 길에서 회복하지 못한 채 20년 이상을 보내고 있다.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처음에는 높은 지지도를 보이지만 곧 급격한

지지도 하락을 보이는 것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거품이 처음에는 매력적 이지만 곧 사라지기 때문이다.

대통령들은 역사에 남는 업적을 남기고 싶은 욕심에 쉽게 사로잡힌다. 선거과정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수도 이전 정책을 쏟아 놓았다가 대통령 탄핵사태까지 물고 왔다. 이명박 대통령도 4대강 건설 등 메가 프로젝트의 추진으로 임기 내내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정책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모든 부담은 국민들이 고스란히 껴안으며 거품처럼 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대학자율화 명분으로 지방의 전문대학이나 실업고교들에 대거 대학 인허가를 내주어 대학진학률이 60년대 6%, 70년대 20%대에서 최근 84%까지

가속기 건설이 지역의 이기주의와 맞불려 포항, 대덕, 광주 등 네다섯 군데에서 동시에 건설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건설되면 이를 가속기 운행에만 일 년에 2000~3000억 원은 족히 듦다고 한다.

이공계뿐 아니라 인문사회계까지 수만 명의 대학원 학생들을 지원하는 BK21사업이 일 년에 고작 2500억 원의 예산인 것에 비해 보면 너무 큰 거품이다. 가속기 건설과 같은 메가 프로젝트에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 놓고 BK사업과 같은 기반사업은 효율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존폐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넘센다.

이제 6월이 되어 대선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줄을 잇고 그들은 정책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총청권 수도이전 공약으로 선거에서 재미 좀 보았다는 말을 했던 것이 기억난다. 선거만을 의식해서 효과성이 증명되지 않은 다양한 정책들이 정책 공약팀들에 의해 거품처럼 쏟아지게 될 것 같아 걱정이다.

메가 프로젝트들이 제시되고 거품 공약들이 5년마다 난무할 때 우리의 사회적 비용은 가중된다. 이제 민주화 이후 이 정도 선거를 치러봤으면 유권자들도 거품은 가져내는 지혜를 갖추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거품 공약과 메가 프로젝트

에서 이는 절묘하게 지역이나 소수 집단의 이익과 맞아 떨어져 검증되지 않은 메가 프로젝트들이 엄청나게 쏟아진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대통령뿐 아니라 거품 많은 정책공약을 만들어주는 참모들과 거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국민에게도 책임이 있다.

민영화와 경제자유화를 앞세워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금융자유화로 외국의 단기 자금들이 규제 없이 쏟아 들어왔다가 결국은 외환위기를 맞게 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벤처 육성과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신용불량자를 양산했다.

올라가게 되었다. 이는 우리 지역에도 대학을 유치해야 한다는 지역정치 이익을 반영한 거품의 결과이다. 결국 거품이 사라지면서 대졸 실업자의 양산과 부실대학의 속출이 이어지는데 책임지는 정치인이나 정책결정자는 어디에도 없다.

또 다른 예로 이명박 정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기초과학육성을 위해 과학비즈니스밸트와 가속기 건설의 메가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소수 물리학자들의 연구를 위해 하나에 건설비만 5000억 원, 매년 운영비만 500억 원 이상이 드는

도록 노력한다. 아이와 대화를 할 때 주관적인 판단이나 비판을 섞지 말고 아이의 말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한다. 사실, 부모는 아이에 대한 애정 때문에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바로 이런 애정이 아이와의 관계를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 서로 감정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있는 그대로 사실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섯째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말해야 한다. 부모 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단절되는 이유 중 하나는 서로 상대방의 속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부모가 공부하라고 강요하는 이유는 아이에 대한 애정 때문에이고 아이가 공부 때문에 질투하는 이유도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구성원 간에 진실한 사랑이다. 가족 간에 사랑이 넘쳐날 때 가정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져야 사회가 행복해지며 사회가 행복해질 때 또 우리의 미래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구성원 간에 진실한 사랑이다. 가족 간에 사랑이 넘쳐날 때 가정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져야 사회가 행복해지며 사회가 행복해질 때 또 우리의 미래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장〉

## NGO 칼럼



최삼영

##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하려면 배워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사랑하고 믿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마치 인생의 성공을 결정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성공이 과연 행복으로 연결될까? 물론 아니다. 아이를 제대로 키워내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 교육의 목표부터 수정해야 한다. '성공'이 아니라 '행복'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진정 성공한 인생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가정에서 부모는 남에게 베푸는 모습을 어려서부터 보여주고 가르쳐야 한다. 부모는 더불어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이에게 타인에 대한 배려와 봉사 정신을 가르치고 먼저 모범을 보일 때 아이 또한 부모의 이런 품성을 본받아 나눔의 미덕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부모는 자녀를 믿음으로 보살펴야

한다. 절대적인 믿음은 아이의 성장에 필수 자양분이다. 아이가 무슨 일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 부모의 믿음이 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불안은 아이의 목표나 동기를 훼손되거나 성과를 저해하는 것이다. 부모는 아이를 절망케 하는 조급함을 버리고 언제 어디서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엄마·아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

셋째 아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다. 자신감은 노력하면 잘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된다. 자신감이 있는 아이는 계속 도전하고 노력하면서 민족과 보람을 느끼며 능력의 한계도 뛰어넘을 수 있다.

넷째 아이들에게 책을 가까이 두고 읽는 습관을 길러 주어야 한다. 아이들은 책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고 지적 호기심을 총족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책을 읽으면 아이와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다섯째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

의 갈등이 표출되었을 때 그 관계가 때로는 감정싸움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조화로운 다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외국인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주민들의 의사 변화가 중요하다. 문화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서로 배타적 관계를 유지할 때 서로에 대한 긴장관계는 이웃 간 싸움으로 번지기도 한다. 내가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외국인 이주민의 피부색이나 국적, 종교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평등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을 시작으로, 이 땅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동반자로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서로 마주보기를 시도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마주보기를 통해 한국의 주류문화에 보다 친숙해지고 한국 사회와의 융합을 꾀하는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민족, 인종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던 사람 그 자체만이 존재하던 평화스럽고 풍요로운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아무쪼록 올해 개최된 '세계인의 날'이 이 땅을 찾아온 외국인들에게 행복한 미음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기 바란다.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과장〉

## 기고



김진성

## 상생과 화합의 장 '세계인의 날'을 보내며

우리가 사용하는 음력의 기초가 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사실 우리의 삶은 오래전부터 외국인들과 함께 웠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기록은 그 당시가 다문화·다민족의 시대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외국인에 대하여 폐쇄적이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긍정적으로 그들을 인정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는 단일민족이라는 우리의 자부심이 오히려 세계화의 한 축에 있어서 우리나라 문화를 이질화시키고 있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하는 대목이다.

최근 노르웨이 등 일부국가에 관광적이었던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볼 수 있도록 종교적 이질성과 보이지 않는 차별로 인하여 이들은 주류사회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 주민에 의한 소요사태 및 극우 극단주의자의 무차별적인 테러행위가 연속하여 발생하고 있음을 이미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60~70년대부터 오랜 기간 동안 다민족, 다문화사회를 유지하던 유럽국가에서 조차 다문화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이주민을 함께 가야 하는 동반자로 배려하기보다는 편견과 차별을 바탕으로 이민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는 이미 140만을 넘어서고 있으며 우리나라 인구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다. 2009년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2050년에는 국내체류 외국인이 총 인구 대비 10%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유럽 국가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갈등이나 분열 현상은 없지만, 우리나라 도내에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어 유럽인 이 안고 있는 고민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는 매년 상당수의 외국인 노동인력의 유입을 가능화시키고 있다.

외국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 할수록 외국인에 의한 범죄 또한 많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얼마 전 수원에서 발생한 중국동포에 의한 살인사건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거세지고 이들은 경계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심지어 외국인에 대한 거부와 혐오의 감정이 인터넷 등 정보매체를 통해 여과 없이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반응은 이주민과 국민과

의 갈등이 표출되었을 때 그 관계가 때로는 감정싸움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조화로운 다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외국인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주민들의 의사 변화가 중요하다.

문화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서로 배타적 관계를 유지할 때 서로에 대한 긴장관계는 이웃 간 싸움으로 번지기도 한다. 내가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외국인 이주민의 피부색이나 국적, 종교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평등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을 시작으로, 이 땅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동반자로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서로 마주보기를 시도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마주보기를 통해 한국의 주류문화에 보다 친숙해지고 한국 사회와의 융합을 꾀하는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민족, 인종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던 사람 그 자체만이 존재하던 평화스럽고 풍요로운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아무쪼록 올해 개최된 '세계인의 날'이 이 땅을 찾아온 외국인들에게 행복한 미음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기 바란다.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과장〉

## 영수증·통조림서 순환기 흐름 교란물질 검출 '경악'

아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손에 잡히는 물건을 입에 가져다 빼는 경우가 있다. 일부에 긴 하지만 어른들조차도 장난삼아 혹은은 심심풀이로 그리는 예가 있다.

전철 티켓이나 불편, 혹은 마트에서 막 건네받은 영수증 같은 것들이 주로 그렇게 입에 가져다 빼는 대상이다.

그런데 이 영수증 종이에서 신체 내부에

순환기 부분의 정상적인 흐름을 교란시키는 비스페놀 A라는 물질은 남성이 여성화 되는 현상도 부른다는데 우리는 이런 영수증에 이런 물질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지내왔다. 필자는 이런 물질이 화학적으로 어떤 것인지 잘 모르지만 언론에서 이것이 인체에 흡수 시니번 물질이고, 이런 게 나와서는 안 된다는 소식을 전하기에 꺽꺽 놀랐다.

이 영수증 종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흔하게 주고 받는 물

건 아닌가.

이 비스페놀 A라는 물질은 남성이 여성화 되는 현상도 부른다는데 우리는 이런 영수증에 이런 물질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지내왔다. 그걸 받아서 온종일 주물럭거리기도 하고 까짓꼬짓 움켜쥐고 손장난 치면서 돌아다니기도 하는 게 바로 이 영수증 종이 아닌가.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이 물질이 통조림에 서도 나왔다고 하니 도무지 믿고 살아야 하는게 된다는 거였다. 과일 통조림 같은 경우에는 경계하고 살아야 하는 게 좋다고 하니 가정에서 이 정도만이라도 신경 쓴다면 조심은 도움이 될 듯하다.

▲이기현·광주시 북구 용봉동

## 시설

## 엇나간 교육정책에 추락하는 '실력 광주'

광주 일반계 고교 상위권 성적이 하락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실력 광주'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장학금 교육감 취임 이후 우려했던 실력 저하가 현실화했을에도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에 사실상 불이익을 주고 있어 교육정책에 대한 교사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광주지역 60여 개 고교에 보낸 공문에서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즉 방과후 학습, 야간 자율 학습 시간 준수, 0교시 수업 금지 등 지침 위반사항과 관련, 그 정도가 큰 학교에 대해 특별지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체 고교를 수시 점검해 행·재정적 조치를 하겠다는 경고다.

문제는 이런 조치들로 인해 '실력 광주'가 크게 뒷걸음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장들이 '어떻게라도 학생들을 잘 가르쳐 보려는 교사들의 노력을 매도해도 되느냐'고 항변하는 이유다.

또 자녀의 학습과 관련해 부모의 의견을 배제하는 내용도 있다. 이런 불

만 원까지 치솟았다.

레미콘업계는 원자재 확보를 위해 60~70km 운송거리를 감수하고 전북 순창·남원 등지에서 원정 조달을 하고 있지만 유류대와 고속도로 통행료까지 부담이 더해져 레미콘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레미콘업계는 광주시를 비롯해 인근 자치단체에 걸친 대형 건설현장 '스톱' 위기라니

민원까지 치솟았다. 레미콘업계는 원자재 확보를 위해 60~70km 운송거리를 감수하고 전북 순창·남원 등지에서 원정 조달을 하고 있지만 유류대와 고속도로 통행료까지 부담이 더해져 레미콘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레미콘업계는 광주시를 비롯해 인근 자치단체에 걸친 대형 건설현장 '스톱' 위기라니

## 無等鼓

'여왕의 60년' 잔치가 성대하다. 지난 주부터 시작된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즉위 60주년 기념행사에 세계인의 눈길이 모이고 있다. 2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펼쳐지는 행사로 영국 전역은 국가인 유니언잭으로 뒤덮었다. 행사 일정은 3일에는 1000여 척의 배가 텁크스강에서 수상 퍼레이드를 벌이는 장관을 연출했다.

지난 1953년 6월 2일 즉